



독서지도안

초등

지구촌 사회 학교

※ 여기 실린 독서 지도안은 10차시를 기준으로, 한 차시에 두세 가지 활동을 넣어 구성했습니다. 각 독서 지도안은 해당 도서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다른 구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급 구성과 교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활동을 골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독서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http://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 (초등)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 미래

김정희 글 | 유설화 그림



주제: 다문화, 통일, 시민, 민주주의
관련 학년: 3~6학년



우리 곁에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

“제가 북한에서 온 아이래.” “정말? 근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들이 은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이렇게 수군거릴 때면, 은별이는 마치 자기가 이상한 아이가 돼 버린 것 같아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져요.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고,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쓰는 아이들 말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게다가 반 아이들은 매일 곤란한 질문만 하고 놀려 대지 뭐예요. 과연 은별이는 학교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 들어가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4·27판문점 선언과 세 차례에 연이은 남북 정상 회담 등으로 북한이 성큼 가까워진 시대이다. 물론 쉽게 평화와 통일로 이를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들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일어났다. 이 책은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남한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북한 이탈 주민 은별이 이야기다. 은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북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통일보다 먼저 온 은별이가 한국에서 민주 시민으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은별이를 시작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 바란다.

■ 학습 목표

이 책을 읽는 동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또는 무관심을 발견하고 은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은별이를 돕는 것이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북한 이탈 주민 역시 함께 살아가야 할 한국 시민임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차시
책 읽기 전	먼저 온 미래? 누구의 이야기일까? '북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차시
책 읽기	한국에 온 은별이, 무엇이 필요할까?	1차시
	우리 교실에 북한 아이가 전학 왔어요 은별아, 이건 정말 궁금해	2차시
책 읽은 후	은별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1차시
	왜 먼저 온 미래일까?	1차시



책 읽기 전

■ 먼저 온 미래? 누구의 이야기일까?

표지를 살펴보자.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제목이 ‘먼저 온 미래’일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각자의 생각을 나눈 뒤 교사가 주인공 이름은 은별이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알려 준다. 아이들에게 북한 사람은 흥미롭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김새는 또 우리와 다른 게 전혀 없다. “먼저 온 미래”라는 제목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책을 읽자.

■ ‘북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사람 모양으로 종이를 오려서 4절지에 붙인다. ‘북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람 주변에 붙여 보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 “궁금하다” 같은 말을 적어도 된다.
- 뭐라고 적었는지 함께 살펴본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에 적어서 또 붙인다.
-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떤 것이 같은지, 또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보자.



책 읽기

■ 한국에 온 은별이, 무엇이 필요할까?

20쪽까지 읽고 “구사일생으로 한국에 도착한 은별이가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본다. 학생들 각자 3~5가지 정도를 카드에 적는다. 모듬끼리 모으고 어떤 것이 나왔는지 발표하자. 학급에서 나온 것을 모두 모은 뒤 다시 모듬별로 은별이에게 필요한 것 열 가지를 정해서 이유와 함께 정리하여 칠판에 붙인다.

■ 우리 교실에 북한 아이가 전학 왔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넓게 원으로 둘러선다. 은별이가 드디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수군거리고 이상한 질문을 해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은별이를 곤란하게 한 말과 질문은 무엇이었지 생각해

보자. 잠시 생각한 뒤 색종이에 적어 종이비행기를 접는다. 말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한 사람이 먼저 맞은편으로 날리면 종이비행기가 떨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집어 올려 펼친 다음 크게 읽는다. 그러고는 그런 말을 자기가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은지를 말한다.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적은 종이비행기를 맞은편으로 날리고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결국 은별이는 울면서 주저앉아 버렸다.” 하면서 교사가 가운데 그려놓은 원 안으로 들어가 앉는다. 어떻게 하면 은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모둠끼리 의논하여 교사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한다. 원 안에 있는 교사는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충분하다 싶으면 “고맙다.”라고 말하며 일어선다.

■ 은별아, 이걸 정말 궁금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은별이와 친하게 지내려면 서로 알아야 하니 아이들이 은별이에게 이것저것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적어 보자. 이때 문장을 최대한 예의 바르고 자연스럽게 적는다.

정리한 질문을 모아 놓고 교사가 방과 후에 은별이에게 물어서 알아 오겠다고 말한다. 물론, 따로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 준다.



책 읽은 후

■ 은별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은별이 가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찾아보자. 찾은 소식을 은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맞춰 정리하여 간단한 기사문을 쓴다. 뉴스 앵커를 할 친구를 한 명 정하여 “이번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뻐할 소식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활동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나와 주세요.”라고 말한다. 정리한 기사문을 읽는다. 모둠끼리 기사를 전할 때는 기사문 읽을 기사를 정하고 다른 모둠원은 자료화면 역할을 하면서 발표한다. 모든 기사가 끝나면 다시 앵커가 “네, 이 소식들이 밑거름이 되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오고가며 지내는 세계 평화의 중심지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친다.

■ 왜 먼저 온 미래일까?

48쪽 아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 주고 무엇이 먼저 온 미래인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생각해서 책 읽은 소감을 쓴다.